

5월시동인, 5·18 40주년 '시 판화전' 연다

화가 19명도 참여... 8월 5일~25일 5·18 기록관 8월8일 전시오픈식·제7집 '깨끗한 새벽' 출판회

5월시동인은 1980년 5월 항쟁을 겪으면서 결집된 동인이다.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시인들은 5·18의 진실을 알리려 한다는 절박감에 동인을 결성했다.

그동안 5월시동인은 제1집 '이 땅에 태어나서' (1981년)를 시작으로 제5집 '5월' (1985년)을 발행했다. 이어 1994년 제6집 '그리움이 끝나면 다시 길 떠날수 있을까'를 발행했다. 5월시동인의 존재와 발자취는 오월문학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시동인과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문예연구소가 '5월시 판화전'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이번 판화전은 '마침내 하나로 끌어안는 흙 가슴이 되어'를 주제로 오는 8월 5일부터 25일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5월시동인 시

집 제7집 '깨끗한 새벽'이 지난 94년 6집 출간 26년 만에 출간돼 의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형철·고광현·곽재구·김진경·나종영·나해철·박몽구·고(故) 박주관·윤재철·이영진·최두석 등 5월시동인 11명의 시 22편과 초대시인(김준태·김경운·박관서·박두규·송광룡·이승철·임동환·조성국·조진태 등) 24명의 시 24편 등 모두 46편이 선보인다.

또한 화가들의 판화작품도 만날 수 있다. 고근호·김경주·김봉준·김희련·류연복·박진화·조진호·주홍·홍선웅·홍성담·홍성민 등 모두 19명의 작품 46점도 출품됐다.

이번 5월시 판화전은 당초 80년대 5월시동인들이 화가들과 교류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이 계기가 됐다. 엄숙의 시대, 시인들과 화가들은 예술 작품 속에서 민중성과 현실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탐색했다. 1983년 여름 광주야카데미 미술관에서 개최한 '5월시 시판

화전'은 문학과 타 장르와의 연계를 모색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해 9월 판화시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으나'를 출간했으며 1986년에는 교육민주화운동 시발점이 된 '민중교육'지 발간으로 투옥된 김진경, 윤재철 뜻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판화시집 '빼앗길 수 없는 노래'를 펴낸 바 있다.

전시장에서는 고광현 시인의 '노래'와 김경주 화가의 동명 작품 '노래', 나해철 시인의 '절레꽃'과 주홍 화가의 동명 작품 '절레꽃', 윤재철 시인의 '겨울 능소화'와 이동환 화가의 동명 작품 '겨울 능소화' 등 대체로 시의 제목과 동일한 판화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세종 손글씨연구소 김성장 소장해 회원들의 이색적인 손글씨 작품도 함께 전시돼 의미를 더한다.

5월시동인 나종영 시인은 "오랜 침묵을 깨고 동인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40주년을 맞은 5월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한때 중단됐던 동인 활동의 모습을 정리해 다음 세대에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전시의 제목 '마침내 하나로 끌어안는 흙 가슴이 되어'는 동인시집 제7집에 실린 김진경의 시 '두근두근'에서 가져와서 화제가 됐다. 최근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떠올릴 때 이 시가 주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 그만큼 5월시동인은 80년을 밑바탕으로 상상과 생태문명의 단초를 열어가고 기여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

한편 8월 8일 오후 4시에는 전시 오픈식 및 5월시동인 시전집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문의 010-3901-53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한 ACC 체험공간 '계단식 논'.

ACC 체험관,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

'계단식 논'으로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 대리 박태영)의 어린이문화원의 상설 전시체험 공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이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지난 1955년부터 시행해왔으며 독일의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아이디어에어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매년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등 3개 부문에서 창조적인 디자인 창작 활동을 선정해 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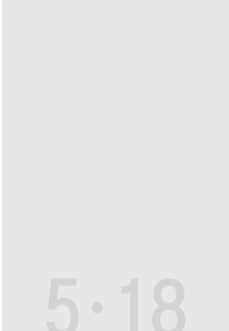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은 전 세계 약 46개국에서 출품된 작품 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9년 신규 개편 전시공간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공간으로 호평을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의 첫 번째 영역은 협조한 코르틸레라스 산맥을 오르는 체험을 재현했다. 두 번째 영역에선 계단식 논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과정을 겪도록 꾸몄다.

특히 계단식 논에 사는 수생생물을 체험하는 공간을 더해 생물모형을 만들고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마지막으로 이푸가오족의 집 '발루아'와 그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축했다.

한편 이번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은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3부작' 중 '이푸가오, 고산에 꽃핀 농경문화'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ACC의 콘텐츠를 교류·조사연구·아카이브·창제작·유통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구조로 보여주는 사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정호 작 '학살2'



주홍 작 '절레꽃'

'오월, 광주'를 기억하는 105명 시인들의 노래

5·18 40주년 시선집 '광주, 뜨거운 부활의 도시' 김창규, 김태수, 나종영, 박몽구 시인 참여 발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의 105명 시인들이 참여하는 기념 시선집 발간도 자못 의미가 크다.

김창규, 김태수, 나종영, 박몽구 시인이 엮은 '광주, 뜨거운 부활의 도시' (시와문화)는 5월 정신을 되새기는 데서 나아가 역사적 의의를 확장해 가는 시들이 주축이 됐다.

이번 시선집은 5·18 이후 시인들이 좁은 문학주의를 넘어 어떻게 혁신하고 세상을 바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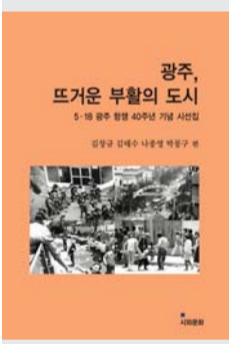
갈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참여한 시인들의 면면만 봐도 전국적으로 고무 분포한다. 대구 이하석, 부산 강영환, 속초 이상국, 세종 이은봉, 대구 정대호, 청주 김창규, 광주 나종영, 순천 김해화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역뿐 아니라 직업과 계층이 다양하다.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분단과 갈등을 넘어 바른 역사를 열어가자는 취지다.

시선집은 항쟁의 원인이 된 전사(前死)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 5월 18일에서 27일에 이르는 항쟁의 숨은 구석을 조명한다. 또한 살신성인 정신으로 투신했던 이들의 고귀한

희생과 인간상도 담았다.

작품집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제1부 '숨은 울음의 나날들'에서는 공공규의 '광주 때 문에', 박관서 '망월동에서' 등을 만날 수 있다. 2부 '끝에서 시작으로'에는 조성국의 '늦은 목련', 이승철의 '지루한 세상에 태극기를 던져라' 등이, 3부 '살신성인으로 새 역사를 만들다'에는 고영서의 '두부처럼 잘리워진 너의 이름은', 박두규의 '오월과 유월 사이' 등이 수록돼 있다. 4부 '깨끗한 새벽을 위하여'에서는 김완의 '아스팔트 위에 뿌린 씨앗'과 박선옥의 '2020년 1월 망월동' 등을 접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연·영상과 함께 '삶의 치유로서의 인문학'

15강좌,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8월6일~11월19일 매주 목요일

철학, 종교, 문학 등을 만나는 인문학 강의가 열린다.

카페 필로소피아와 광주시 동구가 진행하는 '삶의 치유로서의 인문학'은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공연·영상물 상영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다.

모두 15강좌로 이뤄진 강의는 오는 8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7월 첫 강의는 '삶의 철학으로서의 인문학'을 주제로 백승균 계명대 명예교수가 참여하며 피아니스트 김현욱과 첼리스트 박효은의 연주가 함께한다. 이어 13일에는 '문학이 인생에 주는 의미'를 주제로 송상기 고려대 교수가 강연하며 영화 '일 포스티노'의 영상을 함께 만난다. 또 '신의(信義)와 협(俠)의 역사' (이성현 전남대 교수·사학), '자기 초월과 타자의 발견' (박찬구 서울대 명예교수·윤리학)으로 8월 강연을 이어간다.

9월에는 '철학과 마음의 치유' (김정현 원광대 교수·철학), '좋은 삶, 자유로운 삶을 위한 통찰' (김양현 전남대 교수·철학), '책 속에서 찾는 영혼' (이기용·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행복, 스님에게 묻다' (용타 스님·함안 행복마을)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성진기 교수



백승군 교수

10월 강의는 '디지털로 시대의 인생경영' (박성수 전남대 명예교수·경영학), '죽음의 이해' (황태주 전남대 명예교수·의학), '르네상스 문명의 지적 이상' (김준섭 전남대 명예교수·문학), '법적 재판 그리고 정의' (이근우·법무법인 로컴 변호사)로 구성되며 11월에는 '사랑과 용서, 자기 가치 치유의 여정' (한순마·조선대 인문연구원 교수·문학), '인간, 존재의 영웅' (성진기 카페필로소피아 대표) 강의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11월 19일에는 '인문학의 새로운 요청'을 주제로 연사와 청중들의 토론회도 펼쳐진다.

각 강의에는 '선물러 리스트' 영상 상영, 김정원 피아니스트 공연 실황 상영, 진도 씨김국영상 상영, 해금 연주(고영란), 노래(정용주) 등의 인문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무료 참가. 회당 선착순 40명. 문의 010-4643-9494. /김미경 기자 mekim@kwangju.co.kr

민금순 동시집 '꽃들이 하는 말'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에게 말을 걸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맑고 순수해서 자연이 하는 말이나 꽃들이 하는 말을 쉽게 알아듣고 꽃들에게 말을 걸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여류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민금순 시인이 동시집 '꽃들이 하는 말' (아동문예)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시는 꽃과 자연을 노래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작품은 어른들이 읽어도 무방하다. 어찌면 동심을 잃고 살아가는 오늘의 어른들이 읽는다면 훨씬 감동을 줄 것이다.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나에게도 말을 걸어 줘!', 2부 '풀밭 초대장', 3부 '벌들의 놀이터', 4부 '겨우 그걸로?', 5부 '집안이 꿈들'로 전체적인 이미지는 꽃이 핀 행복한 정원을 떠올리게 한다.

정혜진 전남여류문학회장은 "자연사랑과 생명사랑의 맑고 착한 마음이 언어로 통하는 신기한 세계를 만든다"라고 평한다.

회산 출신 민 시인은 1997년 문학춘추에서, 2001년 문학세계에 동시로 등단했으며 동시집 '낙엽이 아플까 봐', '씨앗을 심을 때', '꽃들이 하는 말' 등을 펴냈다. 전남문학상과 화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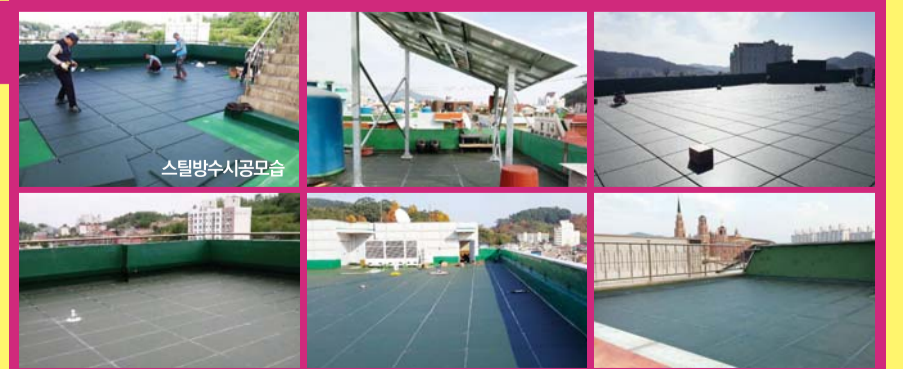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